

### 장애인, 공원 편의시설 이용 불편 크다

광주·전남 실제 인증 받은 공원 단 한곳도 없어  
BF인증 여부 떠나 장애인 이용 편리성 제고 중요

장애인의 여가 활동 공간이 기도 한 공원 5365건 가운데 예비·본인증은 12건으로 이중 실제 인증을 받은 공원은 단 7곳에 불과한 실정이나 그나마 광주·전남지역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BF 인증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공원의 장애인 편의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이 크다. 따라서 인증 여부를 떠나 실제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08년도부터 시행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는 어린이, 임산부, 장애인, 노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접근·이용·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설계·시공한 건축물, 공원, 여객시설, 도로, 교통수단, 지역에 대해 인증을 하는 제도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2015년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에 대해 인증을 의무화하면서부터 2019년 8월 현재 5190건에 달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 이루어지고 있다. 장애인단체의 한 관계자는 “공원 화장실의 경우 인증을 받던, 받지 않던 장애인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로 만들

어야 한다”면서 BF인증 여부를 떠나 실질적 장애인 이용이 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 BF인증 사례를 볼 때, 접근로의 경우 종합안내관 안내, 덮개, 단차 및 기울기, 보행장애물 등의 개선이 필요한 점이 있었다고 꼽았다. 그는 또 “가장 많이 지적받은 것이 종합안내관인데, 화장실에 가면 남자용, 여자용이다 이런 접자판이 정확히 설치돼 있지 않다”면서 “덮개의 경우도 구멍이 크면 신발, 목발, 지팡이가 빠지고, 가로수, 가로등 등이 막힌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함께 “화장실 문을 열기 위해서는 60cm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확보가 안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10~20cm로 설치될 경우 비장애인은 열지만,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목발 사용 장애인 등은 이용이 힘들다.”면서 “세면대 높이가 높거나 잘못 설치돼 접근이 불편한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장애인들은 화장실 개선사항으로 ▲주출입구 수평으로 마감하되 단차 없게 계획 ▲안내표지판 독립형 장애인화장실, 일반 화장내 장애인 이용 가능 대변기칸, 일반 화장실에 따라 다르게 설치 ▲출입문 측면활동공간 60cm이상 확보 ▲출입문 전후면에 휠체어 접근을 위한 1.2m 유효거리 필요 ▲대변기칸 내부 유효공간 2mX1.6m 이상 ▲대변기 손잡이 기준에 맞게 설치 ▲광감 지식 세정장치와 대변기 등받이 필요 ▲비상호출벨과 호출벨 수신처 연결 ▲기준에 맞는 세면대와 거울 높이 ▲세면대 모든 수도꼭지에 냉온수 점차 표지 등을 꼽았다. 신봉우 기자



### 광양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합동점검...한 달간

불법주차 2015년 268건 → 2018년 1374건 5배 증가

광양시는 11일부터 한 달간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장애인단체와 합동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4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가능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만 주차 가능하다. 하지만 개인의 편의나 주차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불법주차, 주차 방해, 표지 위반조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실정

이다.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해 접수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 건수와 벌금은 2015년 268건 2600만원에서 2018년 1374건 1억3000만원으로 5배 증가했으며, 올해는 10월까지 1489건 1억 5000만원으로 매년 신고접수가 급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과 단속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전용주차구역이라는 인식 확산을 위해 계도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농어촌공사, 나주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서 작은 음악회

2012년 나주 이전 뒤 계산원과 7년 인연...꾸준한 나눔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7일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인 나주 계산원에서 그라시아스합창단과 공사 직원들로 구성된 KRC밴드가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를 열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7일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인 나주 계산원에서 그라시아스합창단과 공사 직원들로 구성된 KRC밴드가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를 열었다. 이번 음악회는 평소 공연 관람이 어려운 계산원 원우들이 그동안 봉사활동을 통해 만난 공사 직원들이 하는 연주를 익숙한 환경에서 편하게 즐기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내 동호회로 활동하고 있는 KRC밴드는 친숙한 곡을 선곡해 공감되는 연주를 했고, 서울에서 2000년 창단 이래 클래식음악 공연활동을 하는 그라시아스합창단이 아름다운 음색과 화음을 만들

어냈다. 특히 김인식 사장은 다년간 닦은 하모니카 연주 실력을 선보이며, 세대를 이어 익숙한 동요 등을 연주해 친근한 모습으로 큰 호응을 받았다. 농어촌공사와 계산원의 인연은 2012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공사가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이 결정되면서 계산원과 결연했고, 이후 청소, 배식, 산책과 같은 일상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했다. 사육 견학과 공사 사업현장 등 외부 견학 지원과 함께 분기별로 계절 김치를 직접 담가 제공하는 등 꾸준하고 다양한 나눔활동도 계속해 왔다. 김인식 사장은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실천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전국장애인체전 광주선수단 금 56개 종합 8위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광주시선수단은 7일 광주시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성과보고회’에서 우수단체상과 포상금 등을 수상했다. 광주시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22개 종목에 403명의 선수가 참가해 금메달 56개, 은메달 45개, 동메달 66개 등 총 167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대회 역사상 최대 규모로, 성적도 지난해보다 두 계단 상승한 종합 8위를 기록했다. 양궁협회, 골프협회 2개 종목은 종합 2위를 달성해



우수단체상을 수상, 특별 포상금을 받았다. 전년보다 종목별 점수가 크게 향상된 역도연맹은 성취단체상을 받았다. 금메달 역도 박광혁(3관왕), 은메달 사이클 박영관(3관왕), 동메달 수영 김초룡(4관왕) 선수가 선수단 대표로 포상금을 받았다.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062-960-6980  
광산구 사암로 340번안길 5